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 논의

인문학 교수에게 연구는 '과외활동'인가?

이 상 섭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초등학교 교사는 일 주일에 30시간이나 교실 수업을 하고 온갖 잡일을 다 하는데 대학의 교수는 뭐가 특별히 잘나서 겨우 9시간 강의하면서 엄살이냐" 하는 소리를 주위에서 자주 듣는다. 더욱이 대학의 직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사실 간혹 수강생이 여남은밖에 안 되는 학반 셋만 맡아 한 학기 동안 끌어가다가 기말에 학점 보고하는 것으로 대학 교원 노릇 다하는 이도 없지 않아 있을 법하다. 강의 준비에 주당 30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혼자 연구실이나 집에서 하는 일이고 정작 의무적인 노동은 9시간만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니 고액 봉급 값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적대적 정서가 있다는 말이다. 하기는 완전한 초임이 아니라면 주당 30시간을 순전히 강의 준비에만 보내야 하는 교수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그 교수는 매학기 새로운 과목만을 맡아야 하는 드문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매학기 강의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허락되지도 않은 것이 우리 대학의 철저한 관행이다. 다시 말하면 새 교과목의 개발, 새 교재의 채택도 썩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러니 교실에서의 강의는 상당한 정도까지는 반복적이 된다.

요컨대 경험있는 교수에게는 주당 9시간의 관행적 교실 수업을 준비하는 데 대체로 30시간씩이나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교수는 얼마쯤의 강의 준비와 교실 수업 이외에 무슨 일에다 시간을 보내는가? 학생

논문 지도, 무슨 위원회 참석, 보직자라면 그에 따르는 사무 등으로 시간을 빼앗긴다 해도 주당 30시간이야 될 턱이 없다. 그렇다. 그런 일 다 하고도 남는 시간에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른바 '연구'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는 이공계냐, 인문계냐에 따라 그 성격과 행태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대체로 수학을 제외한 이공계의 연구에는 많은 조교, 조수, 연구원들이 따라붙는다. 그러므로 이공계 교수는 동시에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공계 교수는 일 년에도 수십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다. 다만 공동 연구자 또는 연구 보조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교수들은 상당한 연구비와 인적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바로 그것이 학점을 주는 강의가 될 수도 있다. 연구와 교육이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계의 연구 분야에도 조교와 공동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적지 않다. 실상 그런 연구과제가 늘어가는 형편이다. 인문 영역에도 그런 연구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연구자 개인이 기존 문헌을 섭렵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생각하고 써보고 하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고독한 학자 노릇하는 것이 주종이다. 필자는 한 공학자가 "왜 인문학 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을 지도하고서도 그것을 발표할 때 공저자가 되지 못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학생의 논문에서 지도교수의 생각과 판단이 절반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면, 그 논문은 분명히 공동 작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딴은 그렇다. 그러나 인문학 영역의 학위 논문은 거의 써주다시피 해도 학위 논문으로 제출되는 순간, 그것은 제출자의 배타적 지적 소유권에 귀속되는 저작이 된다. 이것은 이공계 교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공계 교수의 경우에는 논문 지도 자체가 바로 연구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인문학자의 경우에는 논문을 지도하는 시간만큼 연구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문학 교수에게 연구는 '과외활동' 같은 것이 되고 만다. 인문학 교수는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두세 과목을 배당받아 강의해야 하는데, 교수 자신의 특정한 연구와 교실에서의 강의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기이하지만 오히려 정상이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 교수는 강의 준비 따로, 개인 연구 따로 해야 한다. 물론 이공계에서도 일반물리 같은 기초과목 강의는 교수 개인의 특정 연구 과제와 별 상관이 없을 터이지만, 상급 학년이나 대학원 과정의 강의는 자신의 연구 과제 수행의 일환이 된다.

필자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개인적 연구 영역을 나름대로는 어렵사리 정리했지만, 그 내용을 필자에게 배당된 어떤 학과목에서도 풀어 놓을 수가 없었다. 강의하고 채점하고 위원회 참석 등 잡무 보고 남는 시간에 혼자 책 읽고 자료 정리하고 생각하고 쓰고 하여, 교실의 학생들보다 먼저 '강호제현'에게 알리겠다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주었다. 요즈음 사전편찬 관련 '첨단' 문헌들을 공부하고 실제 작업도 벌이고 있지만, 이 새로운 영역은 영문학자인 필자가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국어학 내지 언어학의 배타적 소관 사항이라 교실 상황에서 젊은 학도에게 직접 전달할 길이 원천봉쇄되어 있다. 사전 편찬학 연구와 한국어사전 편찬 실무는 현재 필자가 영문학 강의를 하고 남

는 시간에 전력 투구하는 일거리이다.

강의는 대학 교수의 의무이면서도 특권임에 틀림 없다. 혼자 연구하는 학자는 자기의 연구 결과를 학술회의나 논저를 통하여 사회에 발표할 수 있지만,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를 돕든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직접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학도들 사이에 둘러 싸인 교수에 비하여 연구 효과의 직접성과 즉각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고급 국립 연구기관들인 과학기술원과 정신문화연구원이 순수 연구 기관으로 출발하였다가 정규 대학원 교육을 덧붙이더니 급기야는 연구 개발보다도 학위수여 기능을 위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른 선진국에서는 순수한 연구 기관이 대학보다 높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연구 기관으로 출발한 기관마다 교육 기관이 되고자 하는지 모를 일이다. 한국의 학자는 교원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가? 아니면 연구자들이 순수한 연구에 충분한 보람을 느끼기 어렵도록 굳어버렸는가? 그 좋은 연구 환경을 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연구 조건이 열악한 대학으로 선뜻 자리를 옮기는 연구원들이 적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우리 대학들은 금년 9월로 만 50년이 되는데 이제야 겨우 대학 개혁을 운위하고 있다. 조동일 교수가 지적하듯 한국 대학을 꽁꽁 묶어 놓은 각종 행정적 규제는 생산적 교육은 물론이고 창의적 연구활동을 옥죄는 데에 그 위력을 가장 첨예하게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교수들이 강의의 책임시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고 믿지만 — 실은 그것이 순수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부러움을 사는 큰 특권이지만 — 개별적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책임시간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말은 특정 연구보다는 일반 교육에 열의가 있는 교수에게는 강의 시간을 더 많이 배당하는 것이 옳다는 말도 된다. 모든 교수의 강의 시간을 일률적으로 주당 3, 4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 집중 기간에 따라 주당 0시간까지 감면시켜 줄 수는 있되, 특별한 연구 주제나 행정적 책임을 맡지 않은 교수는 주당 12시간까지는 교실 수업의 책임을 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다. 모든 교수가 다 언제나 특정 연구 주제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실은 교육에 전력하는 교수가 많아야 교실 교육은 활성화될 수 있다. 대학에서 교실 교육이 없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중심 활동이다. 그러나 연구에 주력하는 교수도 필요하다.

인문학자에게 주는 그리 많지 않은 연구비는 그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이공계에나 걸맞게 되어 있어 큰 문제이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인문학자는 조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매우 적고 기자재 구입비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연구비의 큰 부분은 자연히 서적 구입에 들어가는데 서적 구입 예산은 전체의 몇 퍼센트로 하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비 신청자는 하는 수 없이 무의미한 숫자들을 이리저리 꿰맞추어야 한다. 창피한 짓이다. 서적 구입 이외의 비용은 대체로 고독한 연구자가 외롭게 집필하는 논저에 대한 원고료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이 서양의 것처럼 완벽하다면, 인문학자는 연구비보다는 강의와 학사 사무의 감면을 훨씬 더 원할 것이다. 그 만큼 이공학자보다 인문학자의 연구를 뒷받침하기가 수월하다.

한국의 대학 교수 대부분이 교육 선진국

에서 학위를 받든가 장기 연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진국인 한국의 대학 관행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여 조 교수의 당연한 절규를 새삼스런 뉴스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학의 고삐를 쥔 정부도, 행정적 관행에 젖은 대학당국도, 교수 대중도 큰 일을 조직적으로 매끈하게 벌여나갈 것 같지가 않다. 어쨌든 조 교수가 일으킨 큰 문제에 적극적인 결말이 나기를 고대한다.

이상섭/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문과대 학장을 지냈고, 동 대학 한국어사전 편찬실장을 7년째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영미비평사 연구 1』, 『영미비평사 연구 2』,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등이 있고, "말뭉치 : 그 개념과 구현", "뭉치언어학의 기본 전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大學敎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